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 허장 2차관, 주요 공공기관장 및 공공기관 인턴·구직자 등과 간담회
- 공공기관이 과제(Task)를 제시하고 청년 AI 인재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21일(화)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수 운영 사례와 공공기관 입사자의 생생한 취업 경험을 공유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취업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26.7.21.(화) 14:00~15:30 /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 참석자: (청년) 공공기관 청년 신입직원, 공공기관 구직 청년(청년인턴)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토안전관리원 등  
(정부) 허장 제2차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김완희, 민세진, 최정민 위원

허장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은 단순한 고용 주체를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AI 활용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여 AI 인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간담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기관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인턴 경험 신입직원 및 취업 희망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2025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수 운영기관의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규모는 총 2.3만명이었으며, 이중 채용 규모가 크고 인턴 프로그램이 우수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이어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지역청년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❶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광주 등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전문역량 경진대회, AI 커리어관리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금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❷국토안전관리원은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댐·교량 안전점검 현장직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❸한국연구재단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실전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AI 리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 AI 면접, 커리어 관리·분석, 컨설팅 등 제공

\*\* 공공데이터 분석·시각화, AI 기반 보고서·이미지, 웹사이트 개발·자동화 등

또한, 공공기관 입사자들은 AI 활용 교육, 선배직원 멘토링 등 인턴 프로그램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자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전공 전환자 등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본인들의 취업 경험을 공유하였고, 청년인턴들은 ❶인턴수료 이후의 지속적인 취업 관리·지원, ❷AI 등 직무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❸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직무 참여 프로젝트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인턴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함께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AI 인재를 활용하는 일자리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AI 역량을 갖추고 각자의 취업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br>인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박혜수 (044-215-557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효상 (jeongx@korea.kr)<br>정현미 (hmjeong@korea.kr) |



## [ 인사 말씀 ]

- 존경하는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입니다.

## [ 청년 고용 구조변화와 AI대전환 ]

- 최근 AI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례없는 기술진보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은 AI 대전환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6.6월, 15~29세) 고용률 43.9%(△1.7%p), 쉬었음 인구 35.9만명(△4.9만명)

## [ 정부·공공기관의 대응 방향 ]

- 정부는 지난주에 「'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發 고용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KDT AI캠퍼스 하반기부터 41개소를 운영 등
- 신산업·과학기술 등 민간부문 일자리 10만개와, 채용연계 일경험 등 공공일자리 10만개 등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은 30만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 '모두의 창업' 제도 대폭확대, '청년 특화 리그'를 신설 등 10만명 이상 양성

- 공공기관도 단순한 고용 주체를 넘어,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AI 활용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역의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무경험과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AI 도입·활용을 확대하여  
AI 인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난달에 디지털트윈 물관리, AI 교통관제,  
AI 수상로봇 등 혁신프로젝트 톱10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 디지털트윈 물관리: 수자원공사의 홍수 예측 시스템
  - AI 교통관제: 도로공사의 CCTV 8천8백여 대를 실시간 관제
  - AI 수상로봇: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발견·수거
- 이달 23일부터 공공기관 AI 청년 서포터즈\*를 통해  
공공기관의 AI 혁신프로젝트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 (모집) 혁신프로젝트 우수기관 등 총 22개 기관, 3명씩 총 66명을 선발  
(활동) 소속 분야 업무 관련 AI 활용 아이디어 제안
-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과제(Task)를 내고,  
청년은 AI로 답을 찾는 이 선순환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 마무리 말씀 ]

- 오늘 간담회는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든든한  
취업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아낌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